

포커스 완주군 경로당서 기억력 검사 하는 날

“어르신 치매 불안감 떨쳐 드려요”

주민 치매 조기 발견 위해 방문 ‘치매환자 쉽다’ 운영 재개, 관심

완주=소완섭 기자

“아, 조용히 봐요. 선생님 말씀 안 들리잖아!”

18일 오후 2시 완주군 봉동읍 봉동주공 2차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완주군보건소의 ‘우리 마을 기억력 검사 하는 날’이 어르신들이 뜨거운 관심 속에 차분히 진행됐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완주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의 치매예방 관리 교육에 귀를 쫓종 기울었다. 교육이 끝나고 치매조기검진 수행절차 중 1단계인 인지선별검사(CIST)가 4개 조로 나뉘어 시작되자 어르신들 사이에는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어머니, 제가 불러 드리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 해 주세요. 6 - 9 - 7 - 3”

이날 검사는 오늘 날짜와 현재 장소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지남력(指南力) 검사로 시작해 문장과우기와 기

역회상 등 기억력 테스트,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등 주의력 질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점을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는 시공간 기능 테스트, 시각과 연로를 추론하는 집합기능, 사물이름 말하기와 이해력의 언어기능 테스트 등 뇌기능의 6가지 영역을 검사하는 데 1인당 약 20분가량 걸렸다. 어르신들은 마을 경로당에서 한 번의 검사로 막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어 서로 어서 오라고 연락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70세의 한 어르신은 “자주 기억력이 떨어져 괜히 불안 해.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해서 왔지”라며 “치매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구먼!”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80세의 다른 어르신은 “내가 치매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직접 경로당에서 검사를 해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경로당 회원들이 저마다 큰 관심을 갖고 모두 모였다”고 말했다.

만 60세 이상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력 검사 하는 날’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완치하거나 중증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완주군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



접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1단계 인지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검진된 어르신에 한해 2단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병원으로 안내하고, 경로인지장애나 치매 진단이 내려진 어르신에 대해서는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568명의 인지선별검사에서 17.0%에 해당하는 269명이 ‘인지저하’로 검진을 받았다. 이 중에서 2단계 진

단검사를 통해 약 120명이 ‘경도인지장애’와 92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90명은 3단계의 감별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가 추정하는 군의 치매인구수는 60세 이상 고령인구 3만 명의 약 8.8% 수준인 2,600여 명 정도. 센터는 현재 인력을 충당원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물품 지원과 주기적 교육,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인구의 약 98% 가량을 관리하고 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흥현철 작가전 개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 지역작가 전시가 시리즈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전시로 흥현철 작가전이 시작됐다.

19일 군은 흥현철 작가의 ‘미메시스’의 확장·원리적 사유’ 전시가 새롭게 문을 열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례문화예술촌이 여섯 명의 지역작가와 함께 준비한 지역작가 전시 시리즈 중 세 번째 전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에서 활동 중인 흥현철 작가가 20점의 추상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 서문에서 작가는 정형화되고 양식화되고 교착화되기 이전의 원래 상태, 즉 ‘원초’나지는 ‘시원’으로 돌릴 것을 강조한다.

그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초적 형이상학’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완주=소완섭 기자



유진섭 시장, 정읍시시목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유진섭 시장이 19일 정읍시 시목협의회로부터 시의 발전과 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시 시목협의회 김재조 회장을 비롯한 시목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읍시청을 방문해 유진섭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 재직기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정읍시 기독교계의 복을화를 위한 시목협의회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평이다.

/정읍=박기수 기자



남부안 소생활권 프로젝트 주민기획단 오픈포럼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 사무국은 소생활권(보안·줄포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첫 오픈포럼을 지난 18일 보안면사무소에서 주민기획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부안군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구성됐으며 지역의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주민기획단을 모집했다.

/부안=고병화 기자

군산대 음악과, 군산예술의전당서 무료 협주공연

군산대학교 음악과는 오는 24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제 28회 협주곡의 밤’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군산대학교 음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무대로, 베르디의 서곡, 라이네게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베틀노래(교정희 시, 이원주 곡), 베르디의 ‘신아여, 평화를 주소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등의 레퍼토리로 꾸러진다. 지휘는 군산대 양희정 교수, 악장은 박유나 학생으로 전미란, 박희진, 고예지, 장정윤, 김조에, 양유정, 김지원, 박소미 등 음악과 재학생들이 연주가로 출연한다.

박경우 예술대학장은 “출연자들이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이 무대가 감동의 선율로 어우러짐을 전해주는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군산=백용규 기자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가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해설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마을의 특색을 살려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변화된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해설사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수 기자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광대 도시재생 홍보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 13일 원광대 도시공학부 동아리 학생 10명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장으로 초청해 도시재생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지역 내 우수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원광대학교 MOU 체결의 성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익산=임규창 기자



고창 자연애헌연염색 전시회

고창 자연애헌연염색문화공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자연염색의 꿈’ 5월의 선물 주제로 영호남교류전을 열었다.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정관재 염색장이 참석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천연염색계의 선한 바람과 함께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왕식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도 작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술적 향기를 보고 만나게 되며 자연에 전통문화연구회 창립과 영호남 교류전의 외연 확대를 희망했다.

/고창=안병철 기자

전북도 사립중고 원로교장회에 임석운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원로교장회는 제11대 회장으로 임석운(사진) 전 영생고등학교장을 선출, 19일 초원식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로교장회의 특색있는 운영방법으로 이사회는 회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는 의결기관과,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로 나누어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원로교장회는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장들로 1999년 9월에 창립되었으며 본회운영은 자체조성한 특별기금 1억500만원으로 타의 의존도가 전혀 없이 자립한 교육단체이다.

/이종근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

무주군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을 환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첫 환영회는 지난 17일 적상면 치목마을 회관에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환영회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 마을환영회는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해 지역민과 화합할 기회가 없는 귀농·귀촌인이 지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유대강화 사업이다.

이에 군은 대상 마을에 다과함, 기념품 구입비 등 개소 당 70만 원씩 지원하며 6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이형철 기자

부안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부안군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와 수돗물 생산·공급과정, 자주 사용하는 상수도 용어정리, 수질정보, 음용방법 등 수돗물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군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1200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배부·비치해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고병화 기자

익산시, 장마철 공동주택 ‘안전점검’

익산시가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 20일부터 공사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각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사지반상태(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건물 기울기), △부대토목 시설(콘크리트·보강토·계비온 등) 및 석축 상태 확인 △주변 시설(주변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건축관계자가 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점검할 계획이다.

/익산=임규창 기자



장수군, 어린이 문화예술 공연

장수누리파크가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무대로 변신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장수누리파크에서 팝페라, 마술, 벨리댄스, 버블쇼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에 선정돼 이뤄진 것으로 공연단과 운영기획사가 버스를 타고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해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수=유기종 기자

고창군, 드론 직파드문모 심기 컨설팅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아산면 벼 직파재배단지 시범사업 단지원을 대상으로 ‘드론 직파 및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컨설팅’을 열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노석원 박사를 초청해 저탄소 안정생산 벼 드론 직파 재배기술과 드문모 심기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핵심기술을 전달하고 농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서 드론 직파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드론 직파재배단지 시범사업농가에게는 규산종자코팅과 도복경감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자재, 직파 재배전용 드론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안병철 기자



고창군보건소,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고창군보건소가 경로당 운영 정상화에 따라 치매 예방교실을 이달부터 재개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은 고창읍을 포함한 13개 면의 40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440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교재 학습과 뇌 자극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용 ‘기억짜깁’은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가 개발한 교재로 큰 글씨와 쉬운 설명으로 글을 모르는 분들도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학구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안병철 기자